



# 월간 내일

캐리커처 작가 서은혜 씨 가족

# Contents

## 일의 온도, 노동 속 사람을 읽다

###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

발행처 고용노동부  
발행인 고용노동부 장관  
주소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전화 044-202-7751  
홈페이지 [www.moel.go.kr](http://www.moel.go.kr)  
웹진 [www.labor21.kr](http://www.labor21.kr)  
기획·제작 경성문화사

고용노동부 소식지 「월간 내일」의 저작권은  
고용노동부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이 책에 실린 모든 글과 그림, 사진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월간 내일  
웹진 바로보기

## 36.5도의 일상

삶의 현장에서 기록된 나의 일, 우리의 일



### 04

일의 온도  
솔직히 무섭지만

### 08

일터의 열정지수  
돈보이는 성과는 일과 삶의 균형으로부터  
(주)엑셀세라퓨틱스가 밝힌 효율적인 워라밸 비결

### 14

MOEL 인사이드  
‘노동절’ 복원과 공휴일 지정, 노동 존중의 법제적 전환

### 18

시시콜콜 상담소  
계약서 없이 일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 내일의 체감온도

정책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변화



### 20

함께하는 MOEL  
방향을 바꾸자, 다시 보이는 길  
상품기획자 장희성 씨

### 24

현장의 목소리  
행복한 일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노동의 가치’ 새롭게 일구다

### 28

공감 1도  
근로에서 노동으로, 숫자 너머의 삶을 지키는 사람  
울산지방고용노동청 이정옥 노동감독관

### 32

글로벌 통신  
일하는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다면  
세계가 주목하는 ‘노동시간 주권’

### 34

MOEL 뉴스

## 심포의 온기

모든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작은 심터



### 38

내일 인터뷰  
우리는 노동자 가족입니다  
캐리커처 작가 서은혜 씨 가족

### 42

내일의 일  
사라진 유산, 디지털로 되살린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 44

두근두근 내일 여행  
자연과 첨단이 공존하는 디지털 시티 투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판교

### 50

세프의 레시피  
골목 추억을 깨우는 갑오징어 튀김과 마늘종 소스

### 52

내일 툰  
· 기억을 다시 걷는 시간  
· 관계에서 지칠 때, 마음 균형잡기

### 54

게시판



## 솔직히 무섭지만

어느덧 작가가 된 지 십 년이 조금 넘었다. 시작은 우연이었다. 어렵게 들어간 회사에서 대리로 진급 하자마자 막무가내로 그만뒀다. 그리고 역시나 막무가내로 대학원을 준비하던 중 등록금에 보탬이 될까 싶어 만화를 그렸다. 불행히도 대학원은 떨어졌지만, 다행히도 데뷔작인 <아만자>로 상을 받고, 단행본을 출간했으며, 차기작 제안까지 받게 됐다. 그 뒤로도 주욱 우연의 연속이었다. 만화를 그리다 어느 사보에 실릴 짧은 글을 써달라는 제안을 받아 글을 썼고, 그 글을 본 출판사 편집자에게 연락을 받아 수필을 쓰게 되었다. 그렇게 연달아 네 권의 수필을 쓴 뒤, 드라마 각본 제안이 들어왔고 이후로는 줄곧 드라마와 영화 각본 작업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때마다 하는 일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큰 범주에서 ‘이야기를 만드는’ 일을 해왔기에 계속 ‘작가’로 불리고 있다.

AI의 발전이 화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소 뜬구름 잡는 소리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변화 속도를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하루가 다르게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입맛대로 내가 원하는 음악과 그림, 글, 그리고 영상까지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물론, 하루 종일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을 해야 했던 단순 반복적 서류 업무를 순식간에 처리한다. 작가로서 내가 느끼는 편리함도 많다. 무엇보다 각본을 쓰기 위한 자료 조사를 위해 발품을 팔아야 할 수고가 적어졌다. 궁금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면 지치지도, 질리지도 않고 자료를 조사해 와주고, 검증은 물론 개연성까지 확인해 주기 때문이다.

놀라운 AI 덕분에 많은 것들이 편리해졌지만, 마냥 기분이 좋지만은 않다. 지금이야 인공지능이 작가인 나의 보조적인 역할을 해준다지만, 머지않은 시기에 내 예상을 아득히 뛰어넘어 발전한다면 ‘앞으로도 내가 작가로 불릴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이다. 이런 걱정은 나만이 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반응담 식으로 떠돌던 ‘미래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있는 직업 리스트’는 이미 당연한 일이 됐다. 각종 제조 현장의 노동자들을 대체할 로봇이 양산에 들어갔고, 글로벌 기업에서 기존 직무를 인공지능이 대체해 직원을 대량 해고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물론 아직은 ‘일부’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다.

당장은 대다수의 사업장이 로봇을 살 정도로 ‘로봇 도입 비용이 인건비를 대체할 만큼 낮지 않고’, 인공지능에겐 복잡 미묘하게 꼬여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도리(융통성)’가 없다. 아직은 사람이 일할 여지가 있는 셈이다.

하지만 안심할 수는 없다. 대량생산의 무서운 점은 원가 절감이기에, 로봇의 값이 점점 싸져 '노동자를 쓰는 것보다 싼' 가격에 도달할 수 있다(지금도 키오스크와 서빙 로봇, 테이블 오더 앱은 맹활약 중이다). 복잡한 업무 역시 점차적으로 표준화하고 규격화하여 '유도리'가 필요 없는 통제된 환경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인간은 점점 더 '로봇을 쓸만한 단가가 안 나오는' 영역의 일로 밀려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공포가 엄습한다. 실로 '노동자'의 위기다.

그러나 동시에 지나친 걱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한다. 인류의 역사는 기술과 도구의 발전과 함께 번창해 왔기 때문이다. 비행기가 대중화되었다고 자동차가, 사진기가 만들어졌다고 그림이, MP3가 생겼다고 콘서트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일이 생겨나고, 더 다양한 문화를 향유하며, 더 깊게 연구하고, 더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사람이 다양한 결실을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드라마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우리 역시 지구 반대편에서 개발된 기술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다 기술과 도구의 발전 덕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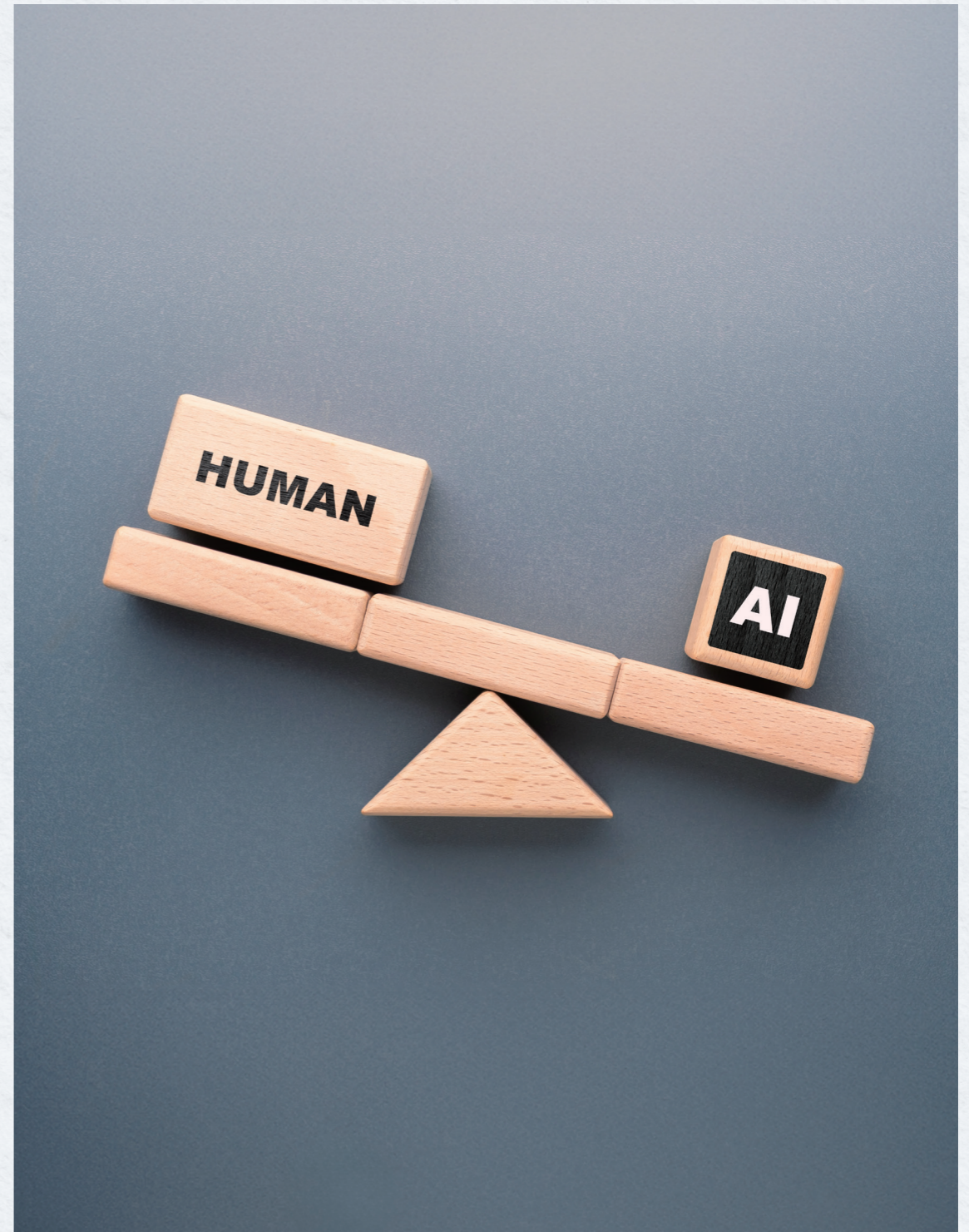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로봇과 인공지능이 내 일자리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공포에 떨다 제2의 러다이트 운동\*을 벌이겠다며 데이터 센터를 습격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보다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전이라는 훌륭한 기술과 도구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또한 그 발전으로 얻은 효용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고 재분배할 수 있는가를 의연하고 성숙하게 고민하는 것이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일 것이다.

당장 작가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런 글을 씀으로써 모두가 함께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다.

\*러다이트 운동(Luddite Movement): 19세기 초 영국 산업 혁명기 당시, 기계가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믿어 직물 기계를 파괴하며 기술의 급격한 진보에 저항했던 민중 운동

**글. 김보통**

글쓴이 김보통 작가는 20대 청년 암환자의 이야기를 다룬 <아만자>로 데뷔했다. 오늘의우리만화상, 부천만화대상 시민만화상을 수상했다. 드라마로도 잘 알려진 <DP>, <노무사 노무진>에 이르기까지 화려하지 않은 자리에서 살아내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다.



# 돋보이는 성과는 일과 삶의 균형으로부터

(주)엑셀세라퓨틱스가 밝힌 효율적인 워라밸 비결

# harmony

돋보이는 성과는 근로 시간이 아닌, 업무 효율성에서 비롯한다.  
지난 2015년 설립한 (주)엑셀세라퓨틱스가 세계 최초 제조품질관리기준(GMP)  
등급 줄기세포용 무혈청 화학조성배지 개발로 널리 주목받은 배경이다.  
우수 역량을 갖춘 석박사 연구 인력과 생산 품질 전문가 중심 기술집약형 기업인 이곳은  
산업 특성에 걸맞은 다채로운 워라밸 제도 시행으로  
2025년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글 오민영 사진 김경환



## 배양 배지 제조 영역 내

### 토탈 솔루션을 제시하는 눈부신 활약

국내외 첨단 바이오 산업의 눈부신 결실은 연구 목적으로 세포를 배양할 때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하는 용액, 즉 세포배양배지에서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테다. 더욱이나 엑셀세라퓨틱스는 각종 암과 희귀 난치성 질환 등에 탁월한 효험이 있는 세포유전자치료제(CGT) 개발을 위한 배양 배지 제조 전문기업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뛰어난 두각을 드러낼 수 있었던 비결은 동물이나 인체 유래 물질을 배제한 3세대 화학조성배지(CellCo<sup>™</sup>) 생산 기술이다. 성분 규명이 이뤄진 화학물질 기반의 3세대 배지는 동물

혈청을 활용한 1~2세대 배지와 달리 바이러스 감염 위험성이 없으며, 품질 균일성과 안전성까지 갖췄다.

나아가 이곳은 2025년 11월부터 세포치료제 공정개발(CDO) 서비스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현재 보유한 배지 기술에 기반해 연구개발 효과를 한층 높이고, 산업 현장에 신속하게 적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세포처리시설(CPC) 구축,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인 벡톤 디킨슨(Becton Dickinson)을 비롯한 세계적인 브랜드와의 판권 계약으로 세포분석장비와 연구용 시약 제품 국내 공급 등을 추진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해당 영역에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는 구심점으로 활약하고자 한다.



## 일과 삶의 균형을 이루려면

### 자율성과 책임감, 서로를 향한 존중과 열린 소통, 그리고 효율 중심의 업무 방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사업 범위가 확장하면서 자연히 구성원 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전문 인재 약 60명이 함께하고 있으며 올해 추가 채용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윤신 피플앤컬처본부장은 끊임없는 조직 성장이 곧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난해 대비 1분기 기준 매출액이 세 배가량 증가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2026년 총매출 1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북미와 유럽, 중국 등의 시장에서 파트너십을 넓혀 나갈 계획이라며 미소 지었다.

### 자율성과 효율에 기반한 전문 역량 향상

엑셀세라퓨틱스는 고객은 물론 사회와 구성원, 그리고 주주와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기업으로 발전하고자 한다. 또, ‘과학과 기술로 인류의 건강한 미래에 기여한다’는 미션 아래 글로벌 스탠다드를 선도하는 세포배양배지 기업이란 비전을 구현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임직원 간에 △존중과 소통 △자율과 책임 △품질과 신뢰 △혁신과 도전 △효율과 몰입 △지속가능성 등을 바탕 삼아 성장을 도모해 왔다. 대표적인 예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의 코어 타임을 제외하면 근무시간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같은 맥락에서 유연근무제를 포함해 선택적근로시간제, 시차출퇴근제(오전 8시~10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제, 간주근로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시행하고 있다.

“다양한 제도 가운데 유연근무제 등에 관한 내부 구성원의 만족도가 단연 높습니다. 해당 제도 안에서 유연근무제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죠. 또, 출산 육아 장려 정책을 시행하면서 생애주기에 따라 직원 누구나 적절히 근무시간 배분이 가능하도록 뒷받침합니다.”



정일광 피플앤컬처본부 대리는 구성원을 위한 제도와 체계가 곧 복리후생으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호평받았다고 설명한다. 또, 효율성과 업무 만족도를 높이면서 책임감이란 가치 또한 공유할 수 있는 조직 문화가 정착하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 워라밸에서 비롯한 안정적인 조직 문화

#### 실현과 선순환

앞서 소개한 일과 삶의 균형 즉, 워라밸은 이곳 이 창립 이래 계속해서 염두에 둔 이슈였다. 그러다가 코로나19 사태를 경험하면서 비대면 차원의 재택근무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의 변화가 찾아왔다. 비록 당시엔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고충을 겪긴 했지만, 효율성과 성과 창출 측면에서 긍정적이었던 제도를 발



### 직원이 일과 가정 모두에서 충만함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출발점입니다

견할 수 있었다고 김윤신 본부장은 전한다.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연구개발(R&D), 생산, 품질, 기술지원, 영업, 마케팅, 경영관리와 코퍼레이트 등의 관련 전문가를 채용하고, 인재 밀도 향상에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었던 계기다. 아울러 법정 휴가 외에 생일 휴가 1일, (건강검진) 유급 휴가 등을 지급해 업무 집중도를 높여 나갔다.

“연말엔 오피스 얼리 클로징데이라고 해서 긍정적으로 마지막 5영업일을 자체 섣다운하는 자체 휴일을 부여합니다. 적절한 마감으로 새해를 준비한다는 의미가 있죠.”

피플앤컬처본부의 박예진 대리와 이정연 대리가 환한 얼굴로 덧붙인다. 과연 지난 2025년에 제도 정착 효과 분석을 거친 결과, 업무에 적응하고 몰입하는 데 소요하는 시간과 비용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효과가 있었다. 더불어 출산율과 장기근속은 늘어나는 환경을 제공하기도 했다.

안정적인 조직 문화 실현은 엑셀세라퓨틱스와 함께하는 기업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는 선순환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다. 현재 이곳 제품은 전 세계 16개 유통채널을 통해 총 23개국에 공급 진행 중이다.

#### 구성원이 자부심을 느끼고 최상의 전문성을 이끌어내도록

대한민국 기업 전반이 조직 문화에 관해 고민하기 시작한 시기는 사실 그리 길지 않다고 할



수 있다. 업력이 10년에 이른 엑셀세라퓨틱스가 관련 제도를 확립한 기간 역시 다를 리 없다. 다만 자율성과 책임감에 기초해 구성원의 전문 역량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충분히 이바지하면서 인상적인 결실을 거둘 수 있었다.

“한마디로 업무시간이 줄어든 반면 효율성은 더 견고해진 셈입니다. 성과 관리나 평가의 공정성, 각종 체계 확립 등으로 몰입도는 높아졌죠” 이러한 과정에서 소통이 중요하다고 여긴 김윤신 본부장과 피플앤컬처본부는 2023년 10월부터 월말 타운홀 미팅을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물론 기존에 있었던 제도였지만, 더욱 활성화하면서 타운홀 미팅은 전체 구성원이 다양한 이슈와 정보를 나누고 논의하는 자리로 발돋움했다.

그런가 하면 그룹웨어 중심으로 인사 정보 페

이지를 오픈해 각종 사내 정책과 조직 문화 가이드, 이슈 등을 아티클로 공유해 왔다. 종합해 보면 전체 시스템을 짜임새 있게 축적해 나가는 데 비결이 있는 셈이다.

“다른 산업과 달리 그간 첨단 바이오 분야는 기업 문화를 적극적으로 선도하기보다는 역량 등의 기능에 집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엑셀세라퓨틱스는 인적개발관리 측면에서 더 나아가 공고한 조직을 실현하려 합니다.”

덧붙여 잠재 채용 지원자는 깊은 관심, 구성원은 더없는 자부심을 느끼도록 노력하겠다는 김윤신 본부장의 포부에 자신감이 어린다. 모든 직원이 워라밸로부터 효율성을 경험하고, 이로써 최상의 전문성과 역량을 이끌어내고 있는 기업, 엑셀세라퓨틱스가 믿음직스러운 이유이다.

## '노동절' 복원과 공휴일 지정, 노동 존중의 법제적 전환 63년 만에 노동의 가치를 찾다

2026년 5월 1일, 대한민국 노동 역사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1963년 이후 63년 동안 '근로자의 날'로 불리며 본래의 의미가 충분히 드러나지 못했던 이날이 마침내 '노동절'이라는 이름으로 그 뜻을 온전히 담게 되었다. 이번 명칭 복원은 단순한 단어의 교체를 넘어, 우리 사회가 노동의 본질적 가치와 존엄을 국가적 차원에서 재정립했다는 상징적 의미를 지닌다.

글 편집실



###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복원 후 맞이하는 첫 번째 노동절

우리나라 노동사가 63년 만에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했다. 1923년부터 이어져 온 노동절의 역사는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공식 명칭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됐다. 이후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적용 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돼 공무원과 교사 등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긴 공백에 마침표를 찍은 것은 2025년 11월 11일, 해당 법률이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면서부터다. 이로써 2026년 5월 1일은 세계노동절 136주년인 동시에, 한국 법정 기념일로서는 명칭 복원 후 맞이하는 '첫 번째 노동절'이라는 역사적 위상을 갖게 됐다.

### 공휴일 격상으로 실현된 '모두의 휴식권'

단순한 명칭 복원을 넘어 노동절의 법적 지위 또한 격상됐다. 2026년 4월 6일, 노동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OECD 38개국 중 34개국이 노동절을 공휴일로 운영하는 국제적 표준에 부합하는 조치다. 무엇보다 그동안 민간 근로자와 달리 노동절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던 공무원, 교사, 특수고용 노동자 등도 포괄하는 국가 기념일이 되었다는 점이 핵심이다. 이로써 노동의 의미를 되새기는 '모든 노동이 존중받는 날'로 거듭났다.

### 노동권 보호 강화를 위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예정

제도적 전환의 또 다른 축은 감독 체계의 전면적 재설계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지난 4월 7일 공포되어 12월 8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로써 노동감독관을 경찰관을 제외한 특별사법경찰관 중 유일하게 직무집행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보유하게 됐다. 법 시행과 함께 명칭 또한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며 전문성을 높인다. 특히 주목할 대목은 '지방정부 사업장 감독 권한 위임'의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이다. 지역 현안에 밝은 지방정부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생활 밀착형 예방감독을 실시하고, 중앙정부가 이를 총괄·조정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통해 지역 내 노동권 보호를 한층 강화할 전망이다.

## 실질적 변화의 가속, 현장집행력 강화

법 이름을 바꾸는 작업을 넘어 일터의 실질을 바꾸는 작업도 병행되고 있다.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 개정 「노동조합법」 제2·3조는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 교섭의무를 지도록 규정했으며, 쟁의행위로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제한했다. 또한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등 「임금체불 근절대책」이 수립됐으며, 시를 활용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를 점검하는 노동행정 효율화 시스템도 추진 중이다. 감독 대상은 5만 2천 개에서 9만 개로, 감독 인력은 3천 131명에서 5천 131명으로 대폭 확충되며 임금체불 처벌 역시 징역 5년 또는 벌금 5천만 원 수준으로 강화되어 감독행정 혁신의 토대를 닦았다.

## 이제 다시, 모두의 노동절, 노·사·민·정의 동행

법과 제도의 복원이 한 축이라면, 이를 현장에서 완성하는 것은 '함께하는 과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전태일재단 등 노·사·민·정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들과 조찬 회동을 갖고 공동의 준비 노력과 협력 의지를 확인했다. 노동절 기념행사 공동준비위원회는 정례 실무회의를 통해 행사 기획을 협의해 왔으며, 4월 한 달간 MBC에서 송출된 공동 라디오 캠페인 역시 이러한 협력의 결과물이다.

4월 30일 전야 행사로 마련된 청년층 대상 「노동절 전야, 토크콘서트」를 통해 일의 의미와 일하는 방식의 변화에 대한 생각을 공유했다. 5월 1일 당일에는 청계광장에서 전태일기념관을 거쳐 평화시장에 이르는 5.1km 코스의 「5.1. 걷기 페스티벌」과 함께 다채로운 체험형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공휴일을 맞이한 국민이 참석한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다.

##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동절 명칭 복원에 이은 공휴일 지정은 노동의 가치와 존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새로이 했다는 점에서 하루 휴일 이상의 상징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63년 만에 이름을 찾고, 73년 만에 독자적인 직무법을 세우며, 노·사·민·정이 한마음으로 준비한 2026년 노동절. 이제 노동절은 단순히 달력 위에서 쉬는 날을 넘어, 우리 사회가 일하는 모든 사람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행복한 일터'를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역사적 이정표가 되고 있다.

## 명칭부터 권리까지, 노동권 보호를 강화합니다

63년

이제부터 다시 '모두의 노동절'



'근로자의 날' → '노동절'

- 1963년 바뀐 명칭, 2026년 공식 복원
- '부지런히 일하라'의 '근로'에서 '스스로 일의 가치를 세운다'는 의미를 강조한 '노동'으로

전국민

모두의 공휴일 5월 1일



- 근로자만의 유급휴일 → 법정 공휴일 격상
- 공무원·교사·특수고용직 포함 전 국민 휴일

노동감독관

법률로 격상



- 73년간 행정규칙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정
- 중앙+지방 이원화, 임금체불 처벌 강화(징역 5년·벌금 5천만 원)

노동감독

숫자로 보는 변화



- 감독 대상 5만 2,000개 → 9만 개
- 감독 인력 3천 131명 → 5천 131명
- 노동 감독 행정 강화

# 계약서 없이 일해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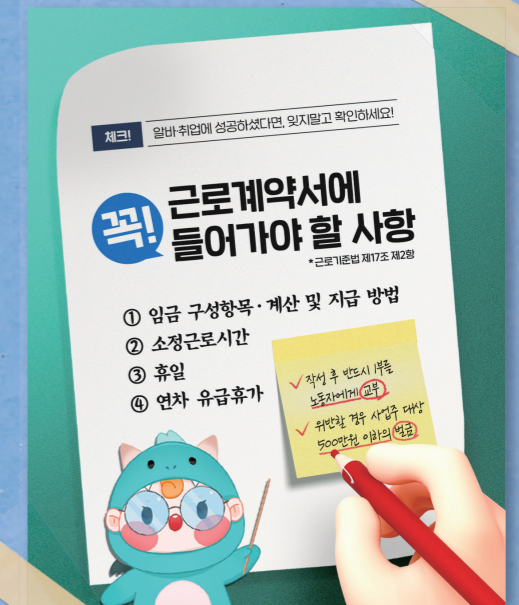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에는 매년 수만 건의 근로계약 관련 상담이 접수된다. 최근에는 배달 라이더, 웹툰 작가 등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의 비중이 늘어나면서 '계약서 없이 일해도 보호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근로계약서는 단순한 종이 한 장이 아니라, 일터에서 나의 권리를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다. 근로계약과 관련해 가장 자주 묻는 핵심 질문을 모아 정리했다.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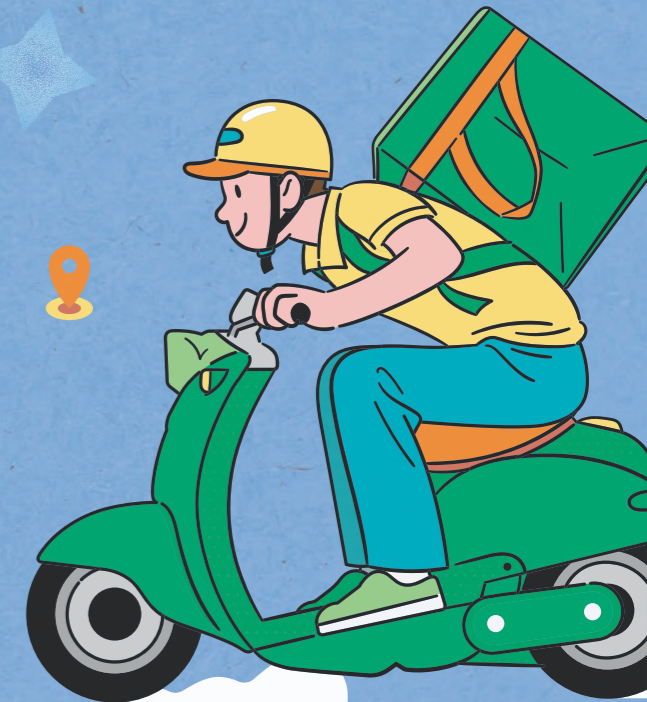
**Q** 새로운 아르바이트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합니다. 처음 쓰는 근로계약서인데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A**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① 임금 구성항목·계산 및 지급 방법 ② 소정근로시간 ③ 휴일 ④ 연차 유급휴가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그 밖에도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담당업무 등을 함께 기재하는 것이 실무상 권장됩니다.



**Q** 근로계약서에 서명은 했는데 제가 받지는 못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되나요?

**A**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명시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114조). 또한,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즉,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요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법적 의무를 다한 것입니다.



# 방향을 바꾸자, 다시 보이는 길

## 상품기획자 장희성 씨의 7전 8기 취업 성공기

7천 번의 지원 끝에,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단순히 이력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여주는 방식 자체를 바꾸기로. 웹사이트를 직접 만들어 포트폴리오로 내걸고, 배움과 활동의 과정을 기록해 나갔다. 변화를 거부하는 대신 자신만의 무기로 활용하며 그는 마침내 새로운 길을 찾아냈다.

글 차유미 사진 오충근

###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것, 그 당연한 즐거움을 위해

장희성 씨는 현재 상품기획자(MD)로 일하고 있다. 왜 이 제품이 필요한지, 타겟은 누구인지 등 제품의 기획에서부터 생애 주기 전반을 책임진다. 패션 전공자로 시작해 온라인 상품기획자를 거치면서 스포츠 의류 브랜드 판매, 판촉물 상품 기획, 배달 플랫폼을 경험한 그의 경력은 겉보기엔 매끄러운 오르막길 같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이력 이면에는 두 번의 큰 부상과 퇴사, 그리고 7천 번 이상의 입사 지원 현황 속에 그의 처절한 인내의 시간이 숨어 있었다.

“어릴 때는 누구나 일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불평도 많았어요. 왜 이 귀찮은 일을 해야 하지?, ‘출근길은 또 왜 이렇게 멀지?’ 같은

투덜거림이 입에 붙어 있었죠.”

변화는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왔다. 길을 가다 넘어져 팔이 부러지는 사고를 당한 것이다. 단순한 부상인 줄 알았지만, 손을 쓸 수 없으니 컴퓨터 작업이 생명인 일을 계속할 수 없어 첫 번째 직장에서도 퇴사하게 되었다. 일 년 가까이 이어진 강제적인 휴식은 그에게 ‘일하는 삶’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가르쳐주었다. 이후 새로운 판촉물 회사에 입사하였고, 재직 기간에 ‘국민내일배움카드’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직무 역량을 한 단계 높여줄 수업을 찾게 되었다.

그렇게 선택한 것이 파이썬 데이터 분석과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웹 개발 입문 과정이었다. 국가에서 지원하는 ‘K-디지털 훈련 과정’ 덕분에 큰 비용 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었다. 덕분에 내일배움카드를 통해 배운 것들을 활용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배웠습니다.  
막힌 길에서 새 길을 찾았습니다.  
그 옆에 늘 고용24가 함께했습니다."**



우수사원도 수상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질적인 허리 통증이 발목을 잡았다. 결국 병가를 냈고 호전되지 않아, 회사의 사정상 더 이상의 병가 지원이 어려워 오랜 고민 끝에 정든 직장을 떠나야 했다.  
“몸이 아프고 나서야 비로소 제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꼈어요. 그때부터 세상을 보는 눈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혼자서는 넘지 못했던 벽,  
교육 현장에서 답을 찾다**

다시 시작하려 마음먹었지만, 재취업 시장은 냉혹했다. 탄탄한 경력을 쌓았다고 자부했음에도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하는 날들이 이어졌다. 구직 활동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계속 부딪히는 기분이었다. 쌓아온 실력과 경험이 있었기에 금방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라 믿었다. 그러나 현실은 또다시 지원과 낙방이라는 가혹한 결과로 돌아왔다.

“500번 넘게 떨어지고 나니 ‘정말 뭔가 잘못됐구나’ 싶더라고요. 경력직인데도 서류에서 자꾸 떨어지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더군요. 남들과 똑같은 스펙으로는 선택받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무기를 찾아 나섰습니다.”

‘장희성 씨는 배운 것들을 직접 활용해 웹사이트를 만들고, 그것을 포트폴리오로 내걸어보자는 생각이 들었다. 배움이 단순한 수료로 끝나지 않도록, 결과물로 증명해보고 싶었다. 다시 고용24를 찾은 그는 이번에는 ‘AI 이력서 분석 서비스’의 도움을 받아보기로 했다. AI는 그의 이력서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덜어내고, 기업이 매력을 느낄 만한 강점 위주로 내용을 재구성하도록 도왔다. 단순한 종이 서류가 아닌, 자신의 프로젝트와 역량을 보여주는 디지털 공간을 만든 것이다.

결과는 놀라웠다. 연락 한 통 없던 기업들로부터 면접 제안이 오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는 캐릭터 상품을 만드는 회사에 상품기획자로 다시 입사하였다. 이제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발판 삼아 취업을 준비하는 지인들의 웹 포트폴리오 제작을 돕는 ‘취업 멘토’ 역할까지 자처하고 있다.

**멈추지 않는 리듬으로,  
내일의 문을 두드리다**

장희성 씨의 도전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진행형이다. 최근에는 고용24의 AI 추천을 통해 UI 디자인 톨인 피그마 수업을 추천받고 공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고용24에서 동종업계 사람들이 어떤 공부를 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가 생겨 활용하고 있다고 한다. 사실 파이썬은 신입 시절 독학하려다 포기했던 ‘난공불락’의 영역이었다.

“당시엔 책을 봐도 외계어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수업을 들으며 혼자서는 도저히 풀리지 않던 의문들을 강사와 소통하며 하나씩 해결해 나갔죠. 사실 교육기관이었다면 엄청난 수강료가 들었겠지만, 5만 원 정도의 자부담으로 고급기술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배움의 효과는 즉각적이었다. 재취업 후 그는 반복적인 데이터 정리 업무를 코딩으로 자동화하여 작업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려고 구상하고 있으며, 감에 의존하던 기획 대신 데이터라는 확실한 근거를 활용해 다양한 상품 기획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한다.

최근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년들이 함께한 ‘AI 고용서비스 오픈토크’에 초청받은 그는 자신의 경험을 꼭꼭 눌러 담아 조언했다.

“AI와 새로운 기술을 도구로 활용할 줄 알면 자신의 가치는 분명히 올라갑니다. 제가 7천



번 넘게 시도하며 증명했듯, 포기하지 말고 방법을 계속 바꿔보세요.”

특별한 기적은 없었다. 다만 일을 할 수 없던 긴 시간 동안 일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안 되면 될 때까지 방식을 비틀어보았을 뿐이다. 퇴근 후에도 새로운 배움을 찾아 나서는 그의 발걸음엔 멈추지 않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리듬이 실려 있었다.

## 행복한 일터, 안전한 일터 만들기 프로젝트 '노동의 가치' 새롭게 일구다

고용노동부가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후 소규모 건설 현장을 잇따라 방문하며, 일과 생활의 균형 확산과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 점검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안심 일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작은 현장까지 세심하게 위험 요인을 살피는 '안전한 일터 지킴이'의 발걸음에는 현장 노동자들의 땀방울이 제대로 존중받는 일터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글 송송이



2026. 4. 16.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 담장을 넘어 번지는 일·생활 균형의 온기

산업단지는 경제의 중심지로서, 수많은 노동자가 각자의 내일을 꿈꾸며 치열하게 살아가는 현장이다. 그간 중소기업 현장에서는 인력 운영과 제도 접근성에서 어려움이 많아 '일과 생활의 균형' 목표 달성이 쉽지 않았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14일 경기지역본부에서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을 개최하고, 구로·구미·광주·반월시화 등 전국 4개 거점 산단을 거점으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는 효율과 속도를 넘어 노동자의 삶 자체를 소중히 대우하는 일터 문화를 만들어가기 위한 첫걸음이다.

## 정직한 땀방울을 지키는 든든한 파수꾼

노동이 빛나기 위해선 무엇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특히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5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 현장과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재래형 사고의 그늘이 짙어, 어느 곳보다 빈틈없는 관심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정부는 올해부터 안전보건 전문가 1천 명으로 구성된 '안전한 일터 지킴이'를 현장에 투입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곳을 상시 순찰하며 현장의 안전 수준을 높이고 있다. 지난 4월 16일, 서울 종로구의 한 건설 현장을 찾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접 일터 지킴이로 나서 조끼를

**"이제는 전통적인 근무 방식에서 벗어나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법의 변화가 필요한 때이며,  
그 변화는 산업 현장의 뿌리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2026. 4. 16.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2026. 4. 16. 소규모 건설현장 점검

입고 현장을 누볐다. 40년 경력의 베테랑 지킴이와 함께 안전난간과 시스템 비계를 점검한 장관은 “지킴이분들이 핵심 위험 요인을 직접 짚어주고 재정 지원을 연계함으로써 든든한 안전 일터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현장의 땀방울을 격려했다.

### 실질적 지원으로 다지는 성장 기반

행복하고 안전한 일터는 구호가 아닌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는 구체적인 조력이 뒷받침될

때 완성된다.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는 육아휴직 등에 따른 업무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대체인력 연계를 지원하며, 다양한 정부 제도를 ‘메뉴판’ 형태로 통합 안내해 기업의 활용 문턱을 낮췄다. 이와 동시에 소규모 사업장에는 추락 방지 시스템이나 고소 작업대 등 필수 안전 시설 설치 비용을 현장당 최대 3천 만 원까지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노력은 ‘일하기 좋은 환경’이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기업과 노동자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임을 보여준다.



2026. 4. 14.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 및 간담회

### 함께 만들어가는 활기찬 산업의 미래

행복과 안전이 공존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지역사회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표준협회 등 여러 관계 기관이 힘을 합쳐 참여 기업을 발굴하고, 사후 관리까지 함께 책임지는 구조는 공동체 가치가 현장에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고용노동부는 시 기반 안전 점검 시스템을 도입해 현장 사 진만으로 위험 요인과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의 위치 정보 공유를 통해 태양광·

축사 지붕 공사 등 사각지대까지 지킴이가 선 제적으로 찾아가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아울러 개선 지도를 불이행하면 근로감독 전환 및 사법 처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조력과 엄정함의 균형도 갖췄다. 김영훈 장관은 “전통적인 근무 방식을 벗어나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법의 변화가 꼭 필요하며, 그 변화는 산업 현장의 뿌리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일터마다 안심하고 웃는 미소가 번질 때 우리 경제의 힘도 더욱 단 단해지리라 기대해 본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작은 사업장의 작은 부주의가 큰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킴이는 감시자가 아닌 조력자이자 안내자로서 현장 곁에서 있겠습니다.”**



2026. 4. 14. 산단 행복일터 프로젝트 발대식 및 간담회

# 근로에서 노동으로, 숫자 너머의 삶을 지키는 사람

울산지방고용노동청 이정욱 노동감독관

누군가는 임금을 받지 못한 채 하루를 버틴다. 누군가는 방법을 몰라, 누군가는 두려워 신고조차 하지 못한다. 노동의 문제는 늘 드러난 뒤에야 이야기되지만, 그 이전에는 늘 '망설임의 시간'이 존재한다. 울산지청 이정욱 감독관은 그 시간을 줄이는 일을 한다. 현장에서 시작된 문제를 끝까지 따라가고, 그 결과로 '당연한 권리'를 현실로 돌려놓는다. 그는 '2025년 올해의 근로감독관'으로 선정됐다. 그를 설명하는 가장 분명한 장면은 임금체불 사업주를 구속으로 이끈 사건이다.

글 김혜영 사진 오충근



## 선을 넘은 체불, 책임을 묻다

사건은 요양병원에서 시작됐다. 임금과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신고였다. 처음에는 흔히 접하는 체불 사건처럼 보였다. 하지만 조사 과정에서 이상한 지점이 드러났다. 병원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수익도 발생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임금은 지급되지 않았다. 이정욱 감독관은 당시를 이렇게 설명했다. “단순히 경영이 어려워서 발생한 체불이라면 접근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조사할수록 상황이 달랐습니다. 자금 흐름을 보니 법인 수익이 개인 계좌로 빠져나가고 있었고, 그 돈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정황이 명확했습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체불이 아니라 '의도된 침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건의 성격은 완전히 달라졌다.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법을 의도적으로 회피

하고 노동의 대가를 침해한 구조적 문제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감독관의 판단은 '조정'이 아닌 '책임'으로 방향을 틀게 된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디까지 책임을 물을 것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계좌추적과 압수수색을 통해 자금 흐름을 확인했고, 결국 사업주는 구속됐다. 이 사건으로 확인된 피해 근로자는 100명이 넘었고, 조사가 이어지며 규모는 더 커졌다. 이 과정에서 사건은 개별 사업장을 넘어, 임금체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는 계기로 이어졌다. “사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마다 늘 고민이 됩니다.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에 대한 부담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선을 넘었다'고 판단되는 순간에는 그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처벌과 해결 사이, 감독관의 판단**

하지만 모든 사건이 이렇게 끝나는 것은 아니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대부분의 체불은 조금 다른 얼굴을 하고 있다. 경영상의 어려움, 법에 대한 이해 부족, 관리 여력의 한계. 같은 '체불'이라는 결과라도 그 과정과 원인은 각기 다르다. 이정욱 감독관은 감독관의 역할이 단순히 처벌에 있지 않다고 말한다.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이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가’입니다. 형사처벌을 한다고 해서 근로자의 임금이 바로 돌아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는 지원 제도를 안내하거나 현실적인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 과정이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결국 감독관의 역할은 처벌 그 자체보다, 권리가 실제로 회복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법을 집행하는 동시에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그의 업무는 늘 균형 위에 있다. 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지만,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사건은 해결되더라도 현장은 더 큰 갈등을 남기게 된다.

“근로자는 당연히 억울한 상태로 오시고, 사업주 역시 나름의 사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듣고 법적으로 어디까지 가능한지 설명해야 하는데, 그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일을 ‘문과와 이과를 동시에 요구하는 직무’라고 생각합니다. 법과 숫자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동시에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는 판례를 꾸준히 찾아보고, 사례를 정리하고,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계속 고민한다. 이러한 축적은 단순한 업무 숙련을 넘어, 현장에서의 판단력을 높이는 기반이 된다. 결국 정확한 판단이야말로 불필요한 갈등을 줄



**“근로감독관에서 노동감독관으로, 이름의 변화가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고 신뢰를 만드는 출발점이 된다. “특별히 대단한 목표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제가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야 불필요한 갈등도 줄일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감독관으로, 더 넓어진 현장**  
올해 하반기부터 ‘근로감독관’은 ‘노동감독관’으로 명칭이 바뀐다. 이 변화는 단순한 이름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의 형태가 빠르게 달라지고 있고, 감독의 범위 또한 확장되고 있다. 기존의 고용관계로 설명되지 않는 다양한 노동이 등장하면서, 감독의 기준 역시 함께 재정립되고 있다. 이정욱 감독관은 이 변화를 ‘역할의 확장’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예전에는 비교적 명확한 고용관계 안에서 문제를 다루는 경우가 많았다면,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등장하면서 판단 자체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단순히 사건을 처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노동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감독관의 시야도 그만큼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곧 울산 동부지청으로 자리를 옮긴다. 노동조합 관련 업무가 집중된 지역이다. 기대보다는 부담이 먼저라는 말도 덧붙였다. 새로운 환경은 그만큼 더 복잡한 문제와 마주해야 함을 의미한다.  
“업무의 범위가 넓어지고 난이도도 올라갈 것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자리에서

든 결국 하는 일의 본질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을 직접 보고,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맞게 판단하는 것. 그 과정을 충실히 해 나가는 것이 감독관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을 오래 하다 보니 크게 특별한 목표를 세우기보다는 지금 맡은 일을 잘 해내는 게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생계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무게를 가볍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임금은 숫자가 아니라 삶이다. 그 당연한 원칙을 현장에서 지켜내는 일. 이정욱 감독관은 오늘도 그 경계에서 있다.



# 일하는 시간도 내가 정할 수 있다면

## 세계가 주목하는 '노동시간 주권'

오전 10시, 누군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준 후 여유롭게 업무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집중력이 가장 높은 늦은 밤에 몰입해 성과를 낸다. 과거 산업화 시대의 노동이 '9 to 6'라는 틀에 개인을 맞추는 과정이었다면, 지금의 노동은 개인의 생애 주기와 업무 효율에 맞게 시간을 재설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글 차유미 자료 WEEKLYSEOUL 외

### 노동시간의 저축과 인출, 독일의 '근로시간 계좌제'

독일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뒷받침하는 핵심 제도는 근로시간 계좌제(Arbeitszeitkonto)다. 계약된 근로시간보다 더 많이 일한 시간을 은행 계좌처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휴가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프로젝트가 몰리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일해 시간을 쌓아두고, 자녀 양육이나 자기계발이 필요한 시기에 꺼내 쓴다. 쌓아둔 시간이 많다면 조기 퇴직도 가능하다. 기업 입장에서도 업무량 변화에 따라 인력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실제로 전체 기업의 44%, 250인 이상 사업장의 약 81%, 5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89%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을 만큼 독일 사회에 깊이 자리 잡았다.

### 거절할 수 없는 권리, 네덜란드의 '근로시간조정법'

네덜란드는 2000년에 근로시간조정법을 도입해 세계 최초로 유연근무를 법제화한 나라 중 하나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근로시간의 단축이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입증 책임의 전환'에 있다. 고용주가 요청을 거절하려면 '중대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해야 하며, 단순히 관행이나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드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덕분에 근로자들은 눈치를 보지 않고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근무 형태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되었고, 네덜란드는 삶의 질과 생산성을 함께 높인 유연근무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했다.



### 입사 첫날부터 당당하게, 영국의 '유연근무 청구권' 강화

영국은 2024년 4월부터 유연근무 청구권(Flexible Working Rights)을 한층 강화했다. 기존에는 26주 이상 재직해야 청구권이 생겼지만, 이제는 입사 첫날부터(Day One Right) 유연근무를 요구할 수 있게 법이 개정되었다. 영국의 근로자는 이제 연간 2회까지 근무 시간, 장소(재택근무), 근무 방식(압축 근무 등)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고용주는 근로자의 요청을 거절하기 전 반드시 대면 상담 등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거절 사유 역시 법이 정한 범주 내에서만 가능하다. 영국 정부는 이를 통해 노동 시장 참여율을 높이고, 특히 간병이나 육아 책임이 있는 근로자의 경력 단절을 막는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 시간의 자율성이 곧 생산성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노동시간 주권을 법적 권리로 보장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인간의 집중력과 창의성은 고정된 틀 안에서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기 때문이다. 자신이 가장 잘 몰입할 수 있는 시간을 선택하고, 생애 주기의 흐름에 따라 노동의 강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최선의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간 주권은 고용주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뜻하지 않는다. 그러나 거절 사유를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협의를 의무화한 것은, 시간에 대한 결정권을 기업에서 근로자에게로 조금씩 이동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시간 주권'은 이제 복지의 차원을 넘어,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가 되고 있다.



## 1

###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 개최

고용노동부는 4월 20일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중동전쟁에 따른 청년고용 대응과 추경 집행 방안을 점검했다. 청년 고용률은 43.6%로 하락하고 실업률은 7.6%로 상승하는 등 고용여건이 악화된 데 따른 조치다. 청년들이 채용 축소와 경력직 선호로 취업 어려움을 호소하며 일경험 확대와 취업정보 제공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는 일경험, 직업훈련, 고용장려금 등 청년 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신속 집행에 나선다. 또한 석유화학·관광 등 산업별 고용 영향을 점검하고, 인천 동구를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



## 2

### 건설현장 붕괴사고 예방 세미나 전국 순회 개최

고용노동부는 4월 17일부터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붕괴사고 예방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이는 대형 붕괴사고 증가로 사망자가 13명에서 28명으로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세미나는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부산·인천·광주·대전·경기·강원 등 전국 주요 권역에서 순차적으로 개최되고, 학계·현장 전문가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가 참여해 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원인 분석과 시공 단계별 안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현장 적용 가능한 실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안전기준 준수 문화 확산과 현장 중심 예방 역량을 강화한다.



## 3

### 공공부문 도급 개선방안 발표

고용노동부는 4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노동안전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도 도급금액 삭감, 저임금, 차별, 고용불안 문제가 지속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2025년 발전·에너지 등 6개 분야 584건 실태조사와 112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그 결과 일부 기관에서 임금 격차와 저임금 구조, 고용불안 문제가 확인됐다. 이에 정부는 '모범 사용자' 원칙에 따라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노동조건과 고용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 4

### 'AI 워커' 직업훈련 시범사업 추진

고용노동부는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해 2026년부터 'AI 워커' 직업훈련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AI 워커는 AI 도구를 활용해 업무 생산성을 높이는 노동자를 의미한다. 기업의 66%가 AI 역량 없는 지원자를 채용하지 않겠다는 등 채용 환경이 변화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문제 정의부터 데이터 활용·모델 적용·검증까지 전 과정 수행 역량을 키우는 훈련과정을 마련했다. 영상콘텐츠, UI·UX 디자인, 출판 제작 등 3개 분야에서 AI 활용 중심 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113개 과정이 운영되며 내일배움카드를 참여할 수 있다.



## 5

### 정책연구 협력 MOU 체결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 연구원과 정책연구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 정책 수요와 연구기관 전문성을 연계해 정책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지원사업 정책연구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출연금을 활용해 정책 수요에 대응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에 따라 세 기관은 과제 기획·수행·평가, 자료 공유, 성과 확산 및 후속 과제 발굴 등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정부는 연구 성과를 정책에 반영해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할 계획이다.



## 6

### 고위험 사업장 10만 곳 전수조사

고용노동부는 4월 13일 산업재해 고위험 사업장 10만 개소에 대해 안전보건 관리 수준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집중관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에 대응한 대통령 지시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사업장별 위험 데이터를 분석해 고위험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중 3만 곳은 초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관리한다. 전체 사업장은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초고위험 사업장은 감독·전담관리, 기타 사업장은 컨설팅과 현장지도를 병행한다. 정부는 안전조치 이행 점검과 엄정한 감독을 통해 사업장의 자율 개선을 유도하고,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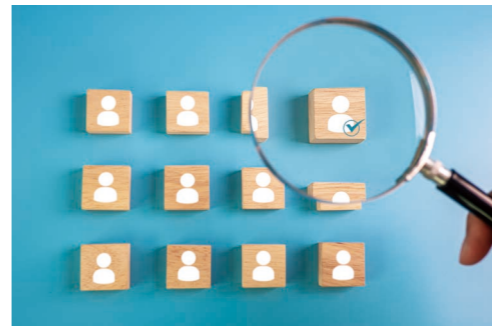


## 7

### 제1회 추가경정예산, 총 4,165억원 증액 의결

지난 4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이 의결됐다. 고용노동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유가·환율 상승과 산업 충격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 취약 노동자의 생활안정 등 지원, 일자리 위기 청년 집중 지원을 중심으로 본예산 대비 총 4,165억원 규모로 증액 의결됐다. 고용노동부는 예산이 현장에 빠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한 계획 수립 및 절차 간소화, 사업별 집중 홍보 등을 진행해 나가며, 어려운 민생에 대한 보호를 더욱 두텁게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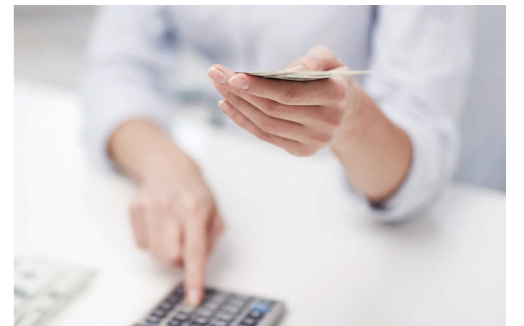
\* 2026년 고용노동부 본예산 37조 6,761억 원 → 제1회 추경 38조 926억 원(+4,165억 원)



## 8

###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 시행

고용노동부는 4월 9일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지도지침을 발표했다. 노사정 합의에 따라 현장의 불공정한 임금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지침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 기재하고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연장·야간·휴일수당을 지급하도록 명확히 했다. 정액급제·정액수당제 등 포괄 지급 방식은 원칙적으로 제한되며, 고정OT도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으면 차액 지급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위반 시 임금체불로 엄정 처리하고, 익명 신고센터 운영과 기획감독을 병행한다. 컨설팅 지원과 근로시간 기록 관리 강화로 정당한 보상 체계 확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 들꽃처럼 피어난 예술과 삶의 기록 우리는 노동자 가족입니다

서은혜·조영남·장차현실·서동일

투박한 빗자루질이 섬세한 붓질이 되고, 외로운 기록이 연대의 노래가 되는 곳.  
경기도 양평의 언덕 위에서 '노동'이라는 이름의 가장 아름다운 기적을 일구어가는  
서은혜 작가와 그 가족을 만났다.

글 차유미 사진 오충근

## 노동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사랑의 공동체'

초록의 물결이 굽이치는 양평의 한 언덕, 이곳에는 매일 아침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출근길이 펼쳐진다.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와 다큐멘터리 <니얼굴>로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었던 서은혜 작가의 일터이자, 35명의 발달장애 예술가들이 함께 일구어낸 '어메이징 아웃사이드 아트센터'다. 소외된 이들의 삶을 묵묵히 카메라에 담은 서동일 감독, 장애인 자립을 위해 스스로 투사가 된 만화가 장차현실 작가, 그리고 아내의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동료 화가 조영남 작가까지. 이들은 스스로를 거침없이 '노동자 가족'이라 부른다. 장애라는 그림자를 노동이라는 빛으로 지워낸 이들의 이야기는, 숨 가쁜 시절을 지나는 우리에게 '함께 일한다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다시금 일깨워준다.

## 먼지 털던 손으로 세상을 그린다

우리는 화려한 조명 아래 선 배우 정은혜를 기억하지만, 사실 그녀가 세상 밖으로 한 걸음을 내딛기 위해 흘린 땀방울은 훨씬 더 치열했다. 23살, 낮은 세상이 두렵기만 했던 은혜 씨의 첫 사회생활은 복지관의 1년 계약직 공공근로였다. 당시 그녀가 맡았던 일은 붓을 잡는 일이 아닌, 복지관 구석구석을 닦는 청소였다. 매일 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빗자루를 들고 먼지를 쓸어내며, 그녀는 사회의 일원으로서 약속을 지키고 자신의 몫을 해내는 법을 몸소 익혔다. 비록 누군가는 보잘것없다 여겼을지 모르 그 1년의 청소 노동은, 은혜 씨의 삶에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주었다. 그 끈기가 밑거름이 되어 문호리 리버마켓의 매서운 눈보라 속에서도 5천명의 얼굴을 그려낼 수 있었고, 오늘날 당당히 급여를 받으며 창작에 몰두하는 '예술 노동자'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처럼, 개인이 홀로 사회에 맞추기 위해  
애쓰기보다는, 사회가 먼저 서로 다른 사람들을  
넉넉히 품을 수 있도록 변화해 나가야 합니다**

삶을 가능케 했다. 먼지를 털어내던 그 투박한 손은 이제 세상을 따뜻하게 위로하는 그림을 그리는 손이 되었다.

**기록하는 아버지와 벽을 허무는 어머니**

이 가족에게 노동은 단순히 생계를 잇는 수단 이 아니다. 아버지 서동일 감독에게 노동은 '기록'이다. 해직교사, 소외된 농부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담아온 그의 카메라는, 이제 딸 은혜 씨와 동료들의 '예술 노동'을 비춘다. 그는 딸이 캔버스 앞에서 부르 뜬 손으로 선을 긋는 과정을 보며, 그것이 세상 그 어떤 노동보다 치열하고 숭고함을 깨달았다고 말한다.

어머니 장차현실 작가는 딸을 위해 '투사'가 된 만화가다. 그녀는 장애를 가진 자녀가 부모 없이도 당당히 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노동'이 필수적임을 역설한다. 뇌수술이라는 큰 고비를 넘기면서도 그녀가 아트센터의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동분서주한 이유는 단 하나다. "내가 가고 없어도 은혜가 노동자로 대우받으며 노년까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다. 그녀에게 노동은 딸의 생존이자, 장애인이 세상과 맺는 가장 건강한 관계의 끈이다.

**그림으로 맺은 필연,  
함께 걷는 다정한 동료이자 부부**

아트센터에는 가족의 울타리를 더욱 견고하고 따뜻하게 만드는 또 한 명의 예술가가 있다. 은혜 씨의 남편이자, 그 역시 발달장애를 가진 아트센터 소속 작가로 활동 중인 조영남 씨다. 두 사람은 그림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소통하며, 서로의 예술 세계를 가장 깊이 이해하는 동료이자 부부다. 영남 씨는 센터 내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일상적인 노동과, 자신의 캔버스를 채워가는 예술적 노동을 병행하며 삶의 주권을 직접 행사하고 있다.

최근 두 사람은 '부부전'을 통해 각자의 고유한 시선이 담긴 작품들을 세상에 내놓으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장애와 비장애의 구분을 지우고, 오직 '일하는 예술가'로서 서로를 격려하며 나란히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은 그 자체로 한 폭의 아름다운 풍경화다. 영남 씨의 든든한 존재감은 은혜 씨뿐만 아니라 아트센터의 모든 동료에게도 커다란 희망의 이정표가 되어주고 있다.

**세상의 모든 일하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은혜와 동료들이 치열하게 선을 긋고 색을 채우는 과정을 보며 다시금 깨닫습니다. 노동은 존재의 가장 고귀한 증명이라는 것ですよ." 가족의 든든한 버팀목인 서동일 감독의 이 말은 곧 이들 가족이 세상에 던지는 희망의 메시지다. 이 가족이 꿈꾸는 미래는 아트센터라는 울타리 안에만 머물지 않는다.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일하는 모든 사람이 각자의 역할을 다 하며 어우러지는 '행복한 빌리지'는, 이제 양평의 작은 마을을 넘어 우리가 사는 도시로, 그리고 이 나라 전체로 번져나가기로 소망한다. 이미 어메이징 아웃사이드 아트센터는 35명의 예술가가 함께 꿈꾸는 마을이 되어,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존재에서 누군가에게 기쁨을 주는 주체로 탈바꿈하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다. 예술이 노동이 되고, 노동이 삶의 구원이 되는 이 건강한 파동이 세상 끝까지 닿기를. 서은혜 작가와 그 가족은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땀 흘리며 우리에게 가장 따뜻한 약속을 건넨다. "우리는 노동자 가족입니다. 우리가 일구는 이 작은 마을이 일터가 되고, 그 일터가 다시 나라가 되어, 마침내 일하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거대한 기적의 지도가 완성되기를 꿈꿉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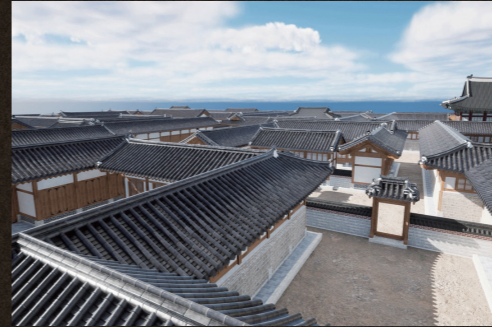
# 디지털로 되살린다

불에 타 무너진  
 성당도, 색이 바랜 옛  
 그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놀랍게도  
 오늘날에는 가능하다.  
 단, 붓과 망치가  
 아니라 데이터와  
 기술로 말이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는  
 사라져가는  
 문화유산을 복원하고,  
 미래로 이어주는  
 새로운 시대의 '전통과  
 기술의 연결자'다.  
 정리 차유미  
 자료 국가유산청

# 사라진 유산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  
 Digital Heritage  
 Specialist



경복궁 3D

## 불꽃이 앗아간 것을, 데이터가 돌려주다

디지털 헤리티지 전문가는 문화유산을 3D 스캔, 가상 현실,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기록하고 복원한다. 오래된 건축물이나 훼손된 예술품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서 나아가, 원형에 가깝게 재현해 사람들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돕는다. 유적을 정밀하게 스캔해 데이터로 남기면, 물리적인 변화가 생기더라도 디지털 공간에서 원형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는 역사적 고증과 기술적 분석이 함께 이루어지며,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와 세밀한 기술 활용 능력이 동시에 요구된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러한 역할은 이미 중요한 기반이 되고 있다. 2019년 화재로 침탑을 잃은 노트르담 대성당은 이전에 축적된 3D 스캔 데이터 덕분에 소실된 구조의 세부까지 정밀하게 재현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 폼페이에서는 드론 측량과 3D 스캔을 결합해 유적 전체를 디지털 지도로 구축하고, 지반 침하와 풍화로 변형되는 부분을 실시간으로 추적·기록하고 있다. 그리스 파르테논 신전의 경우 각지에 흩어진 조각 파편들을 3D 스캔으로 통합해 가상 공간에서 원형을 재조립했으며, 물리적 복원 없이도 신전의 전체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궁궐은 화면 속에서도 여전히 숨 쉰다

국내에서도 디지털 헤리티지의 흐름은 빠르게 자리를 잡고 있다. 국가유산청은 경복궁·창덕궁 등 주요 궁궐을 정밀 3D 스캔으로 기록하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는 내부 공간까지 가상으로 탐방할 수 있는 콘텐츠로 제공하고 있다. 국보·보물 등 지정문화재의 3D 스캔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공개하는 국가유산포털은 연구자와 일반 시민 모두가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아카이브로 운영 중이다. 경주에서는 황룡사 터 등 현존하지 않는 건물을 역사 기록과 발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상 공간에 재현해, 사라진 신라의 풍경을 체험형 콘텐츠로 되살리고 있다.

## 과거는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형태를 바꿀 뿐

디지털 헤리티지 분야는 문화유산 보존을 넘어 게임, 영화, 메타버스 전시 등 다양한 산업과 연결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더욱 정교한 복원과 생생한 경험이 가능해지고, 관련 전문가의 수요도 함께 늘어나는 흐름이다. 이 길을 준비하려면 문화재학, 역사학, 건축학 등 전통을 이해하는 학문과 함께 3D 모델링, 프로그래밍, 데이터 처리 기술을 함께 익히는 것이 도움이 된다.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디지털 아카이빙 프로젝트, 박물관 및 콘텐츠 기업의 현장 경험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은 출발이 된다.



경주 복원

자연과 첨단이  
공존하는  
디지털 시티 투어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

# 판교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란 표현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나,  
이 정도는 절반을 이해하는 데 그치는 셈이다. 특별한 스토리를 곁들인 성남시 워킹투어와 거닐면  
자연과 문화예술, 그리고 신기술이 어우러진 판교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글 오민영 사진 오충근



캐릭터인 라이언이 장미꽃을 물고 재미난 자세로 환영하는 로비는 단연 인기 있는 포토 존이다. 카카오프렌즈 샵에선 각종 굿즈를 마주할 수 있으며, 온갖 카페와 맛집 또한 눈길을 이끈다.

3층 기준으로, 앞서 소개한 네 건물은 공중 공공보행통로가 연결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이 입주해 있는 만큼 서로 원활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오픈해 놓았다. 아울러 김덕희 해설사는 통로에서 광장의 다채로운 행사와 이벤트를 탁 트인 시각으로 관람하기 좋다고 귀띔한다. 특히 밤엔 외부의 환상적인 미디어 파사드가 눈부시게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고도 전했다.

### 크린타워 전망대 위에선

#### 탁 트인 절경이 한눈에

한층 깊이 다가서면 싱그러운 숲이 등장한다. 도심 속 힐링과 휴식이 함께하는 화랑공원이자. 생태 호수 주위로 정교하게 이어진 관찰데크를 따라가면 가장 먼저 화랑정에 도달한다.

### 대형 빌딩 네 곳을 잇는 보행통로와 어우러진 거대한 판교역 광장

김덕희 성남시 문화관광해설사가 함께한 판교 워킹투어는 지하철 신분당선과 경강선이 교차하는 판교역 1번 출구의 거대한 광장에서 첫발을 내디딘다. 카카오판교아지트를 비롯해 판교테크원, 알파돔타워, 그레이츠판교 등이 자리한 판교역 광장이다.

우리나라 대표 IT 기업인 카카오의 실질적 본사로 활약하고 있는 판교아지트는 1층에서부터 매력을 발산한다. 이곳에서 가장 사랑받는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라는 단순한 표현으로 정의하기엔 우리가 모르는 판교의 매력이 무궁무진하다



높이 올라 공원 전체를 훑어볼 수 있는 곳이다. 놀라운 사실은 그 정자 뒤에 있는 판교수질 복원센터가 판교동·백현동·삼평동·운중동에서 나오는 생활 오폐수를 완벽하게 정화해 오로지 맑은 물과 청정한 공기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속이 환히 비칠 정도로 투명하고 깨끗한 물은 호수를 지나 탄천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한강에 이른다.

탄천 변에서도 보이는 크린타워는 판교환경에너지시설, 즉 쓰레기소각장의 굴뚝을 친환경적으로 바꾼 공간이다. 전체 높이 58m, 전망대 기준 177.7m(약 54평) 규모로, 지난 2013년 12월

싱그러운 자연과 어울리고 재치 있는 문화예술을 마주하며 커피 한 잔의 여유를 느껴보자

오픈해 호평받고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른 47m 위의 전망대엔 장서 2,000여 권을 확보한 북카페와 휴게실을 고루 갖췄다. 창가엔 경부고속도로와 판교IC를 비롯해 동남쪽 판교역과 테크노밸리, 서판교 일대 등이 한눈에 들어온다.

**예술 작품과 휴식이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원한다면 NHN 플레이뮤지엄으로!**

현재 글로벌 IT기업인 NHN의 본사인 플레이뮤지엄은 '놀이'와 '창의적인 가치'를 담는다는 뜻에서 이름 지었다. 과연 내부엔 각종 베어브릭 피규어를 비롯해 로버트 인디애나(Robert Indiana)의 <러브(LOVE)>와 아니쉬 카푸어(Anish Kapoor)의 <무제(Untitled)> 등의 작품이 마치 인테리어 포인트인 양 휴식 공간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있다.

또, 나라 요시토모의 <유어 퍼피(Your Puppy)>가 마치 누군가를 반기는 강아지처럼 익살스러운 포즈로 로비에서 기다린다. 아울러 깊게 쉬는 방식을 알려주는 자그마한 도서관인 라이브러리 딥(Library Deep)과 회화 작품이 걸려 있는 갤러리 등을 둘러볼 수 있다. 지하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즐겨도 좋겠다.

**싱그러운 도심 속 정원, 판교환경생태학습원**  
화랑공원에서 멀지 않은 곳에 판교환경생태



판교 크린타워 북카페



NHN 플레이뮤지엄 갤러리



판교환경생태학습원의 열대 난대 온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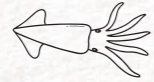
학습원이 우리를 반긴다. 1층 안내데스크에 들러 방문록을 작성하면 초록마을과 체험학습실, 꼬마공작실 등에서 어린이 대상의 상설 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또, 4층 높이의 열대 난대 온실이 펼쳐지는데 온갖 종류의 고사리부터 동백나무, 후박나무, 아라우카리아 헤테로필라, 소철, 덕구리란, 워싱턴야자, 고무나무 등을 만날 수 있다. 생태학습원에서 3층 옥상 정원은 반드시 거쳐야 할 코스이다. 판교 전경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절에 따른 각종 식물을 가꾸는 정원이 있다. 덧붙여 생태학습원은 공휴일과 명절 연휴, 그리고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관람 입장은 오후 6시)까지 무료입장 가능하다.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걷는 판교 여행, 어떠세요?**

**이야기가 있는 판교 워킹투어**

성남시 분당구 내 판교동·백현동·삼평동·운중동·하산운동 일대에 조성한 판교신도시는 싱그러운 녹지와 안정적인 주거 공간, 그리고 첨단 IT 기업이 자리하고 있다. 이야기가 있는 판교 워킹투어와 함께 판교를 산책하면서 문화관광해설사의 깊이 있는 설명과 더불어 도시 건축물과 아름다운 자연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낭만을 느껴보자.

<b>대상</b>	5인 이상 누구나	<b>이용 요금</b>	무료
<b>이용 시간</b>	10시 / 11시 30분 / 13시 / 14시 30분 / 16시		
<b>이용 방법</b>	홈페이지 신청이나 사전 예약(일주일 전) ※ 5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신청		
<b>문의</b>	성남시청 문화관광과 031-729-2996 <a href="https://www.seongnam.go.kr/tour">https://www.seongnam.go.kr/tour</a>		



팔뚝 추억을 깨우는

# 갑오징어 튀김과 마늘종 소스



어린 시절 오징어는 어판에 흔하고 저렴한 해산물이었다. 참오징어, 무늬 오징어, 귀오징어, 갑오징어 등 종류를 불문하고 회, 숙회, 찌개, 볶음 심지어 오징어채로 만든 반찬까지 다양한 형태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밥상 위에 올랐다. 어머니가 오징어 튀김이라도 하던 날에는 놀이를 그만두고 당장 집으로 뛰어갔던 고소한 기억이 난다.

글과 레시피 레이먼 김 일러스트 냉무

오징어로 만든 여러 요리들 중 역시 어린 아이 입맛에 가장 잘 맞았던 게 튀김이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어머니께서 수분이 많은 오징어는 튀기면 기름이 너무 튀는다고 잘 안 해주셔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직도 오징어 요리는 역시 튀김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도 튀김을 시킬 일이 있으면 새우 튀김이나 고기 튀김은 건너 뛰어도 오징어 튀김은 반드시 주문하는 편이다. 요즘 오징어가 금값이라지만 희한하게도 길거리 포장마차나 분식점, 마트 냉동실에는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존재한다. 그 이유는 시판되는 튀김용 오징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른 팔뚝만한 날렵한 동해산 참오징어가 아니라 아르헨티나나 페루에서 잡히는 훔볼트(Humbolt) 계열의 대왕오징어를 가공해서 만들어서이다. 대왕오징어는 살밥이 두껍고 커서 가공용으로 좋지만, 특유의 맛과 향은 물론이고 수분이

한참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래서 먹고 나면 50% 정도 부족함을 느낀다. 이런 대왕 오징어 튀김의 단점이 장점이 되기도 한다. 비록 특유의 향이나 맛은 참오징어에 비해 한참 떨어지지만 바삭한 튀김 옷 안에 '두툽한 식감'이 있다. 흔히들 오징어 식감을 묘사할 때 '쫄깃'이나 '탱탱'하다고 하지만 대왕오징어 튀김은 훨씬 '서걱'하는 두툽한 식감을 자랑한다. 그래서 진한 참오징어 맛에, 두꺼운 대왕

오징어의 식감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몇 년 전 고향에서 먹은 갑오징어 튀김을 생각해 내고 갑오징어를 사서 튀김을 해 먹는다. 갑오징어의 만만찮은 가격에 냉동을 사지만 봄 조항(3월~5월)이나 가을 조항(9월~11월)에 갑오징어 가격이 내리면 넉넉히 사서 손질을 해 얼려 두었다가 볶음을 하기도 하고 튀김을 주로 한다. 특히 봄 조항으로 잡은 갑오징어를 사면 회로 좀 먹고 일부는 튀김을 해서 5월이면 한참 제철인 마늘종을 넣은 소스를 만들어 찍어 먹는다. 누군가는 그럴 것이다. 비싼 갑오징어로 하필이면 튀김이냐고, 하지만 다르게 보면 집에서 하기 어려운 오징어 튀김을 그 비싼 갑오징어로 하니 얼마나 맛있겠는가? 3월 말부터 시작되는 갑오징어 봄 조항이 5월 말에 끝난다.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지금이 제일 적기다.'



레이먼 김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요리로 작은 특별함을 더하고자 한다.

## 갑오징어 튀김과 마늘종 소스

계량 1 큰술 = 15g, 1 작은술 = 5g, 1 컵 = 250ml

### 재료

(튀김) 갑오징어 2마리, 튀김가루(시판용) 1/2컵 + 땃 가루, 찹쌀가루 1/2컵, 물 1/2컵, 옥수수 전분 2큰술, 소금 약간, 튀김용 기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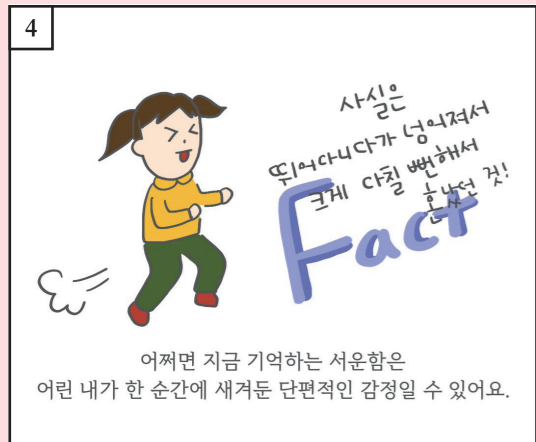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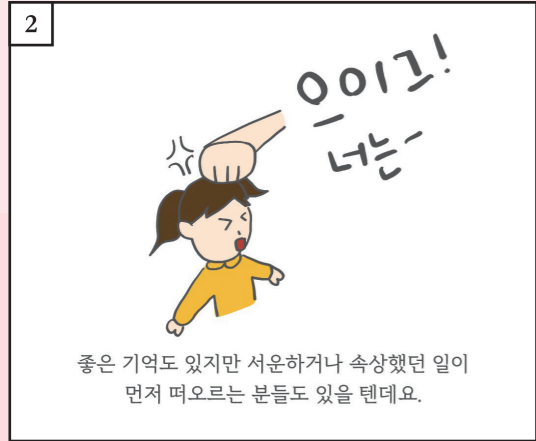
(소스) 마늘종 6대, 청양고추 1개, 홍고추 1개, 마요네즈 1컵, 간장 2큰술, 고추기름 2큰술, 설탕 1큰술

### 이렇게 만들어요!

- 1 갑오징어의 뼈를 제거하고 눈과 입을 떼어낸 후 몸통을 동그랗게 썬다. (넉넉히 즐기고 싶다면 몸통에 칼집을 넣어 길쭉하게 썰어주는 것도 좋다.)
- 2 튀김가루에 찹쌀가루와 전분, 소금을 넣은 후 찬 물을 부어 반죽을 만든다.
- 3 갑오징어에 튀김가루를 한번 묻히고 털어낸 후 만들어 놓은 튀김 옷을 입혀 170도에서 초벌을 튀긴 후 180도에서 다시 한번 튀긴다.
- 4 소스를 만들기 위해 마늘종과 청양고추, 홍고추를 잘 씻어서 잘게 잘라 둔다.
- 5 마늘종을 끓는 소금 물에 20초 정도만 데쳐서 찬물에 씻어 물기를 제거한다
- 6 잘라 둔 모든 재료와 나머지 재료를 넣고 잘 섞어 소스를 완성한다.

# 다시 기억을 걷는 시간

글. 그림 할리오니(@HALIONI)



# 관객에서 지칠 때, 마음 균형잡기



